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현대통신(039010)

하드웨어/IT장비

요약

기업현황

시장동향

기술분석

재무분석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한국기업데이터(주)

작성자

박종현 선임전문위원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신용 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개제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3215-239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IR협의회

현대통신(039010)

우수한 기술력과 풍부한 노하우를 통한 스마트홈 솔루션 분야 선도기업

기업정보(2021/01/13 기준)

대표자	이건구
설립일자	1998년 04월 28일
상장일자	2000년 07월 20일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유선통신장비 제조
주요제품	스마트홈시스템 등

시세정보(2021/01/18 기준)

현재가(원)	8,970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774
발행주식수	8,625,000
52주 최고가(원)	9,240
52주 최저가(원)	3,840
외국인지분율	5.97%
주요주주	이건구, 이내훈

■ 기술력을 기반으로 스마트홈 분야 높은 브랜드 파워 보유

현대통신(주)은 스마트홈의 플랫폼(Platform)으로 동작하는 월패드(Wall-Pad) 분야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 건설사 분양 아파트의 시장 점유율 1위의 기업이며, 스마트홈 등의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다.

최근 스마트홈 산업은 가전사, 통신사업자, 중견 및 중소기업들이 일반 소비자와 건설사를 통해서 공급하는 소비재 또는 서비스 형태로 진화하고 있으며, 국내의 주요 가전사들은 스마트홈 산업을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판단하고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관심을 두고 있고, 최근 성장이 정체된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스마트홈 산업은 주요한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다.

현대통신(주)의 주요 거래처는 아파트 건설사이며, 각 세대, 공동현관, 경비실 등이 연결되는 스마트홈 시스템을 구축 가능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건설사로부터 턴키(Turn Key) 방식으로 스마트홈 시스템 구축 사업을 일괄 수주한 후, 스마트홈 시스템 구축 전반에 참여하고 있으며, 스마트홈 시스템의 주요 구성품인 월패드, 도어폰(Door Phone), 공동현관의 로비폰(Lobby Phone), 경비실의 통화장치 등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다.

■ 민간건설사 분양 아파트 스마트홈 기술신뢰성으로 시장 확대

현대통신(주)은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두산건설, 대우건설 등 국내 주요 아파트 건설사를 주요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민간 건설사가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의 스마트홈 시스템 시장 평균 점유율 측면에서 1위의 기업이다. 또한, 한국능력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브랜드 파워 조사에서 홈네트워크 시스템 분야 꾸준한 1위 업체로 기술력과 품질 신뢰성이 확보된 제품이다. 특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이동통신사의 플랫폼 연동을 기반으로 스마트홈 시스템 기술을 확대하고 있으며, 제어기능, 방범기능, 정보제공기능 등을 활용 가능한 기술력을 확보한 스마트홈 솔루션 분야 선도기업이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개별 기준)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7	1,174	33.71	176	15.02	153	13.02	28.90	17.73	67.66	1,772	6,957	5.33	1.36
2018	1,273	8.43	201	15.78	170	13.39	25.22	16.10	47.86	1,977	8,719	5.46	1.24
2019	1,046	-17.83	105	10.04	107	10.20	13.60	9.67	33.92	1,236	9,685	6.49	0.83

기업경쟁력

스마트홈 솔루션 분야 기술선도

- 스마트홈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디자인과 기능, 사용성 등 기본적인 요소는 물론 통합 스마트홈 솔루션 시스템의 기능과 성능향상을 위한 안정적인 기술력 확보
- Home과 ICT의 융합산업인 스마트홈 기술과 사물인터넷 등을 접목한 홈네트워크 및 홈오토메이션 솔루션 기술 선도

기술력 기반 글로벌 경쟁력 확대

- 무인경비시스템, 스마트홈시범단지, 음성인식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주거문화 선도 기업
- 현대통신 IMAZU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K-BPI) 16년 연속 1위”
- 국내 스마트홈 산업부문 Market Share 1위, 기술력 기반 국외 시장 등 글로벌 경쟁력 확대

핵심기술 및 적용제품

핵심기술

■ 흘네트워크 시스템(Home Network)

- 조명/가스/난방기기 등 가정 내의 다양한 정보기기를 네트워크로 연결
- 주요 시스템을 제어하고 스마트폰 및 인터넷을 통해 외부에서도 제어가 가능한 기술

■ 흘오토메이션 시스템(Home Automation)

- 조명/가스/난방기 등 가정 내의 다양한 기기들을 유기적으로 연결
- 세대 내 및 공용부의 각종 기기를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가정생활의 편리성 향상과 안전 확보를 꾀하는 종합적인 시스템 기술

■ 스마트 보안

- 사용자의 보안과 안전을 제공, 최첨단 방범 및 방재감지, 스마트 출입 통제, 지능형 주차관제, 스마트 위치인식, CCTV, 비상벨시스템 등

■ 서비스 사업

- 안정적인 유지관리 서비스를 통한 타산업군과 융합된 새로운 서비스 발굴, 홈네트워크 시스템 활용 극대화
- A/S 비용 절감, 예방점검, A/S시간단축, 홈네트워크 활용성 증대

주요 솔루션



시장경쟁력

기술경쟁력

■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한 기술장벽 확보

- 홈네트워크, 홈오토메이션, 보안에 대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있으며, ISO9001, 안전확인신고증명 등 품질신뢰성 확보

■ 경쟁사 대비 경쟁력

- 건설사에 직접 접촉하여 제품사양 및 견적제출, 수의계약 및 견적입찰을 통한 판매 또는 대리점을 통한 판매를 하고 있으며, 현대건설, 한라건설, 대림산업, 한화건설, 두산건설 등 주요 1군 업체 등을 대상으로 상거래

매출실적

구분	(단위 : 백만원)		
	2020년3분기	2019년3분기	2019년
S/H 월패드 범용	5,021	8,578	11,076
S/H 월패드 전용	6,478	4,588	5,974
S/H 로비폰 범용	1,936	1,852	2,443
유통 월패드 범용	1,187	775	1,134
H/A 월패드 범용	1,328	792	1,023
해외 월패드 범용	27	231	473
S/H 경비실기 범용	164	122	165
해외 로비폰 범용	3	0	2
기타	46,737	49,219	65,425
설치공사비 외	7,076	10,590	14,756
A/S 자재판매 외	1,811	1,538	2,082
합계	71,768	78,285	104,553

최근 변동사항

코로나19 이후 시장 확대 전략

- 1군 건설업체의 집중 판촉을 통한 시장 확대
- 제품군 다양화 및 차별화로 수주량 증대
- 해외 Agent를 통한 수출 확대 노력
- IoT 기술을 통한 가정 내 가전, 시큐리티, 헬스케어, 에너지관리, 빅데이터 분야 등을 통합한 기술력 확대

I. 기업현황

품질 우선주의, 홈네트워크 및 홈오토메이션 등의 핵심 솔루션을 선도하는 기업

동사는 홈네트워크 및 홈오토메이션 등의 핵심 솔루션을 개발하여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전문 기업이고, 비디오 도어폰 및 무인전자 경비 시스템 등을 선도적으로 국내에 출시한 현대전자산업(주)의 모체로 1998년 설립된 기업이며, 체계적인 경영전략을 통해 통합 스마트 홈솔루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끊임없이 개발 및 연구하고 스마트홈의 보편화에 앞장서고 있는 선도 기업이다.

■ 회사 연혁 및 주요 사업 분야

현대통신(주)(이하 '동사')은 1998년 4월 25일 (주)하이닉스반도체의 사업구조조정에 따라 국내 영업 산하 HA(Home Automation) 사업부문이 분사하여 설립되었으며, 2000년 7월에 회사의 주식을 코스닥 증권시장에 상장하였다. 또한, 자체 기술력으로 HA 및 비디오 도어폰(Video Door Phone)을 개발하여 아파트 주거문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국내 최초 무인전자 경비 시스템 개발과 디지털 도어락(Digital Door Lock)의 시장도입 등 고객의 요구와 시장환경에 맞는 제품들을 끊임없이 개발해 왔다.

[그림 1] 주요 제품



홈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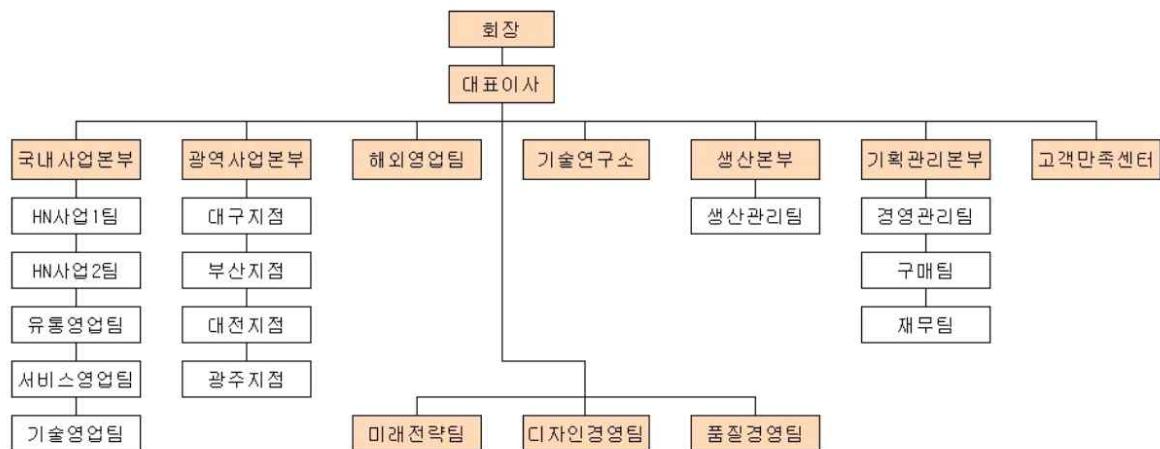
홈오토메이션

*출처 : 동사 홈페이지,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현대통신은 편리와 안전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보다 혁신적인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를 위해 연구와 개발에 매진하여 현재 스마트홈 시장을 선도하고, 스마트 홈 산업의 주역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고 있다. 사업 초기 단순 비디오폰 제품으로 출발하였지만, 공동주택의 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스마트홈 시스템' 개발로 최첨단 씨큐리티 장비를 통한 보안 강화와 유무선 네트워크 기술이 적용된 안정된 제품 공급을 통해 사용자의 편리한 삶을 지속해서 제공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주거환경 구축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다.

또한, 제품개발 못지않게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앞서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03년에는 디지털 이노베이션 대상에서 종합대상인 국무총리상을 받았으며, 이후 다수 제품에 대한 “Good Design” 및 벤처 디자인 상, 2009년에는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2009 iF디자인 상'을 수상, 2020년에는 '홈네트워크 부문 'imazu'가 16년 연속 올해의 브랜드 1위에 선정되는 등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림 2] 동사 조직도



*출처 : 동사 분기보고서(2020년 9월)

■ 대표이사 정보

대표이사 이건구(1976년생, 남)는 스탠포드대학교 MBA과정을 수료하였고, 한국산업은행(2002년~2008년, 최종직위: 팀장), 현대하이테크씨앤씨(주)(2012년~, 최종직위: 대표이사), (주)에이치티비온드(2015년~, 최종직위: 대표이사)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2년 1월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동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으며, 대표자로서 종사 기간은 약 8년, 동업계 종사기간은 약 10년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대표이사는 동업계의 동향을 잘 인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사의 지속성장을 위한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통한 관련 발주정보 수집 등을 수행하고 있고, 절삭가공 공정을 통한 공작기계 등의 핵심부품 기술의 목표시장 및 수요분석/예측, 판매경로 등에 대한 논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전략을 수립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기계설비 및 부품 등의 각종 규제 및 정책에 대하여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체계적인 목표관리 시스템을 통해 기술역량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주력사업 분야에 대한 뚜렷한 목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요업무 분야 전담인력을 두고 기술경쟁력 확대를 위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핵심기술에 대한 산업재산권을 확보하여 기술역량을 확대하고 있고, 주요 사업화 기술분야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연 협력을 통해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핵심공정 및 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동사의 최대주주인 이건구(대표이사)가 24.01%, 이내흔(특수관계인)이 14.4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이건구를 통해 안정적인 경영관리를 수행하고 있고, 경영자로서 전체 조직을 운영하면서도 책임과 권한을 갖는 형태의 안정적인 지배주주 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다.



동사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본사(자가)와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생산 공장, 임차) 소재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약 200명의 임직원이 근무 중이다. 동사의 조직은 이내흔 회장과 이건구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국내사업본부, 해외영업팀, 기술연구소, 생산본부, 고객만족센터, 디자인경영팀 및 품질경영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사 국내사업본부는 건설사 대응 업무와 현장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술연구소와 디자인경영팀에 속한 동사의 개발인력은 약 60명으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인력, 디자인 개발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은 위탁 제조되고 있으며, 조립 및 검수 공정은 성남에 있는 공장에서 수행되고 있다.

[표 1] 주요 주주 구성

주요 주주	대표이사와의 관계	주식수	지분율(%)
이건구	본인	2,070,852	24.01%
이내흔	특수관계인	1,247,316	14.46%
계		3,318,168	38.47%

*출처 : 동사 분기보고서(2020년 9월)

특히, 이내흔 회장은 1998년 현대건설을 퇴임한 후에 1995년 5월에 동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며, 2012년 1월에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회장으로 재직 중이고, 현 이건구 대표이사(이내흔 회장의 아들)가 취임하여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II. 시장 동향

HOME과 ICT의 융합산업인 스마트홈 솔루션을 통한 글로벌 시장의 성장

Home과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의 융합산업인 스마트홈은 사용자에게 편리하고 경제적인 생활을 제공하며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산업분야이다. 최근 스마트홈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핵심 혁신 기술로 부상한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IoT) 발달로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해 나갈 수 있으며, 더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스마트홈의 생태계를 이루는 관련 업계는 다양한 가격 인하 방안 모색, 업계 기술 표준화 정립, 기존 제품의 긴 교체 주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등을 수립하며 소비자들의 수요를 끌어 올리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과 연계된 뉴 패러다임 시장 확대

국내 스마트홈 시장은 중저가 수준의 주택 및 신축아파트로의 사업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의 안정적 공급을 바탕으로 글로벌 해외시장 개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스마트홈 시장은 단순 네트워크를 강조하던 홈네트워크 시대에서 타 산업군과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솔루션 연동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으며, 사물인터넷의 발달로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해 낼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되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음성인식, 사물인터넷이 스마트홈 산업의 핵심기술로 부상하면서 관련 기능 및 성능이 향상된 솔루션 시장이 형성될 전망이고, 유관한 각종 사업에 대한 시장 전망과 주요 지표들이 중장기적으로 매우 높은 성장세를 보인다.

스마트홈 전문업체인 현대통신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가정 내 기기들을 제어 관리하는 시스템을 바탕으로 향후 클라우드 및 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한 가정 내 가전, 시큐리티, 헬스케어, 에너지, 빅데이터 분야 등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시장을 선점하고자 과감한 개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협력업체들과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할 예정이다.

동 업종의 기술적인 특성을 고려 시 체계적이고 정확한 가공을 위한 고가의 설비가 요구되며, 이를 운용하기 위한 전문 인력의 확보 등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국내 스마트홈 사업은 전문 스마트홈 업체, 건설사 관계사, 서비스사업자, 플랫폼 사업자 등 다양한 업체 간의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다. 이에 현대통신은 전문개발인력, 마케팅, 지속적인 R&D 투자를 기반으로 상위 건설사뿐만 아니라 지방의 주요 중소형 건설사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으며, 건설 영업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최근 국내 스마트홈 시장은 건설사, 가전사, 서비스사업자, 제조사 등이 상호 협력과 경쟁을 통하여 시장 선점을 위한 사업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 신축아파트 위주의 스마트홈 월패드 및 연동 서비스 시장은 기존 스마트홈 제조사 위주로 공급되고 있으며, 타 분야 또는 신규 업체들의 시장진입이 쉽지 않은 특성이 있다.



스마트홈의 활성화와 사물인터넷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증가에 따라, 맞춤형 연동 기능이 가능한 솔루션이 지속해서 시장에 등장하여 신축아파트 위주의 분양시장 판매뿐만 아니라 B2C 영업을 통한 신규 시장 개척에도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스마트홈 산업의 특징

스마트홈은 홈네트워크의 진화된 개념으로 기존 서버와 함께 통신사의 클라우드 서버를 동시에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되어 있다.

- 홈네트워크는 스마트폰을 통해 집 외부에서 다양한 기기를 제어할 수 있으나, 가정에 설치된 서버를 통해서만 제어할 수 있으며, 설정된 기능 외에는 부가적인 기능 구현이 어려움.
- 스마트홈은 통신사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 기존 구현된 기기 외에 새로 구입한 기기도 조작이 가능함.
- 집 내/외부 정보를 취합해 스스로 판단한 뒤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안 및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홈네트워크와 차별화됨.

스마트홈을 지원하기 위한 제품 출시가 늘어나고 있으며, 디바이스에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한 제품도 출시되고 있으며, 홈오토메이션, 안전 및 보안, 에너지관리 관련 제품이 출시 중이고, 최근에는 애완동물 사료 공급기, 골프 퍼팅기 등 신제품도 등장하고 있다.

미국 Amazon은 인공지능 플랫폼인 Alexa가 탑재된 홈허브/스피커를 출시했으며, Google은 가상비서인 어시스턴스 에이전트가 탑재된 홈오토메이션 허브를 선보이고 있다. 스마트홈 산업의 특징은 1)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산업, 2) 고부가가치 산업, 3) 융합산업, 4) 다양한 업계의 시장진입이 활발한 산업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표 2] 스마트홈 산업의 특징

산업특징	내용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홈 산업은 통신, 가전, 보안, 교육, 의료, 에너지, 미디어, 콘텐츠, 건축, 모바일기기 등과 관련되어 전후방 파급효과가 매우 큼.
고부가가치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홈 기기 및 관련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부가적인 편의를 제공해 기존 제품 및 서비스보다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음.
융합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홈 산업은 다양한 제품에 IoT 기술을 접목한 융합 산업임.
다양한 업계의 시장진입이 활발한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홈 산업은 성장기 산업으로 가전, 통신사, SW, 보안 등 다양한 업계의 기업이 시장에 진출 중임.

*출처 : 한국신용정보원,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스마트홈 산업의 Value Chain은 전자기기, 통신망, 응용 SW → 스마트홈 → 건설, 일반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국내 스마트홈 시장은 삼성전자, 엘지전자,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등이 참여하고 있다.

- 삼성전자는 글로벌 최대 IoT 표준화 단체인 OCF(Open Connectivity Foundation)의 주축 회원으로, 기존 제품의 혁신에 ‘삼성커넥트’를 더해 스마트홈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가전 전 제품에 스마트 기능을 탑재할 계획임.
- 엘지전자는 2017년 사용자와 대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 허브 ‘스마트씽크 허브2.0’을 출시해 스마트홈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에스케이텔레콤은 2017년 6월 기준 65개 제휴사 250여 개의 연동기기 라인업을 갖춘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스피커 ‘누구’를 출시함.
- 케이티는 2017년 인공지능을 탑재한 스마트홈 시스템 ‘기가지니’를 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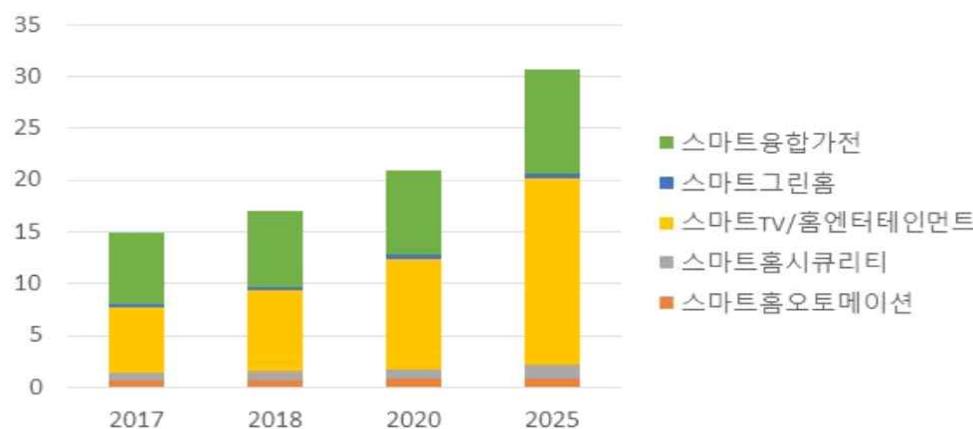
■ 국내 스마트홈 시장은 2017년 15조 원에서 2025년 31조 원까지 성장 전망

- 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는 2019년 1월 스마트홈 산업 동향 조사 결과 발표함.
 - 국내시장은 2025년까지 연평균 9.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성장성이 높은 스마트TV·홈엔터테인먼트와 스마트 융합가전은 2025년 기준 각각 전체 시장의 58.7%, 32.7% 비중에 달할 것으로 예상
 - 동 조사는 기존 가전제품과 홈엔터테인먼트 부문을 많은 부분 포함하여 현재 시장 규모가 크게 조사된 반면, 향후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전망되었다는 한계가 존재
 - 국내에서는 그린홈, 홈시큐리티, 홈오토메이션 분야의 시장규모가 작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해외시장에서 가정용 보안시스템과 스마트스피커 등이 높은 성장세를 시현
 - 국내 스마트홈 인지도는 75.2%로 높으나 국내 산업경쟁력은 5점에서 3.05점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해외 선진사(구글, 아마존 등) 대비 국내기업 스마트홈 서비스의 차별성과 유용성이 낮기 때문으로 판단
 - 한편 관련 업계의 정책 수요는 실증·인증·테스트 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남



[그림 3] 국내 스마트홈 시장 전망

(단위 : 억 원)



자료 : 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2019.1), 2018년부터 전망치

*출처 : 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2019년 1월), 산업연구원 미래전략산업(2019년 2월, 제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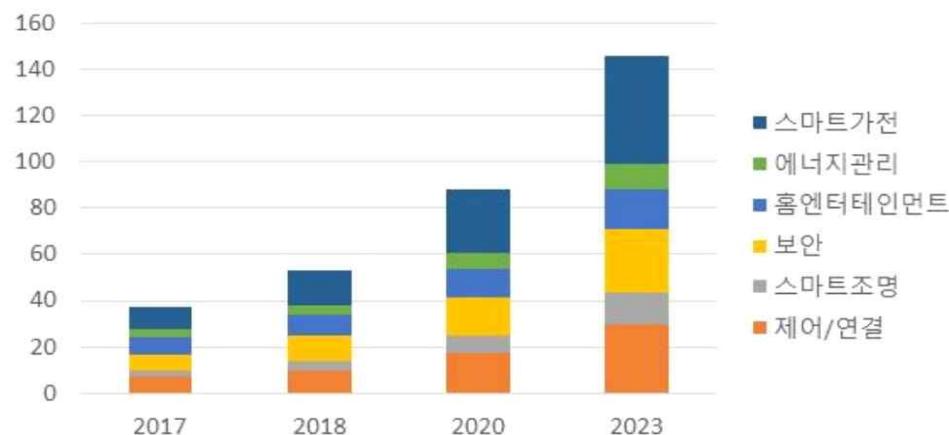
■ 글로벌 시장은 2017년 374억 달러에서 2023년 1,454억 달러로 성장 전망

- 글로벌 스마트홈 시장은 2023년까지 연평균 25.4%의 고성장 전망

- 스마트 가전은 2017년 기준 전체 시장의 26.9%를 차지하며, 연평균 28.9% 고성장하여 2023년에는 전체의 31.8%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
- 다음으로 제어·연결(스마트스피커 포함), 보안 분야가 2023년 기준 각각 20.2%, 18.7% 비중을 차지하면서 주요 시장으로 부상
- 국가별로는 2018년 기준 미국과 중국이 각각 전체 시장의 44.2%, 13.6%로 가장 큰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였고, 향후에는 현재 스마트홈 보급률이 낮은 중국 시장이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
 - 국가별 스마트홈 시장 비중(2018년 기준) : 미국(44.2%), 중국(13.6%), 독일(5.9%), 일본(5.8%), 영국(5.6%), 한국(3.7%), 프랑스(2.7%)
- 한국은 2017년 글로벌 시장의 4%를 차지하나, 이후 신흥국 시장이 더욱 빠르게 성장하면서 국내 비중은 2023년 3% 수준으로 감소
- 이에 따라, 현재는 국내시장에서 스마트홈 제품과 서비스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둔 제품·서비스 개발과 표준화·인증이 더욱 중요

[그림 4] 세계 스마트홈 시장 전망

(단위: 십억 달러)



자료 : Statista(2018.11), 2018년부터 전망치

*출처 : Statista(2018년 11월), 산업연구원 미래전략산업(2019년 2월, 제5호)

■ 국내외 기업 동향

- IoT 가전 혁신제품 출시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스마트홈 생태계 확대 양상
 - 스마트홈 플랫폼과 서비스를 지원하는 혁신제품은 가전 제조업체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업종에서 출시
 - 소비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스마트 가전제품과 서비스의 종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주요 대기업의 플랫폼 경쟁으로 연결될 것으로 전망



[표 3] IoT 가전 혁신 제품 사례

기업명 (전문분야)	주요 내용
샤오미 (모바일·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3분기 사물인터넷 및 생활가전 매출이 전년 대비 89.8% 성장 - 스마트TV의 2018년 3분기 누적 판매량은 520만대 초과, 2018년 7월 스마트 에어컨 출시, 사물인터넷 연결 제품 수는 1억 3,200만대(스마트폰, 노트북 제외)로 전년 대비 13.8% 증가
코맥스 (홈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협력해 인공지능형 스마트홈 서비스 개발, 2017년부터 자회사인 코맥스벤처러스를 통해 스타트업과 협업한 IoT 성장 생태계 구축 추진 중 - CES 2019에서는 인공지능 스마트홈 솔루션과 스마트미러 소개
엔유씨전자 (소형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1월 선보인 IoT 스마트 착즙기는 사용자의 체성분을 측정하고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는 맞춤형 레시피를 제공
경동나비엔 (보일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일러 업체로 알려진 경동나비엔은 냉난방, 가스, 조명 등 다양한 디바이스를 유무선 제어할 수 있는 홈IoT 시스템을 출시하여 'IoT 이노베이션 어워드 2018' 스마트홈 부문에서 대상 수상
브런트 (소형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물인터넷 적용 소형 가전제품 기업으로, 개인용 소형 공기청정기(브런트 에어젯)와 IoT 자동 스마트 블라인드(블라인드 엔진) 출시
서큘러스 (로봇)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춰 개인의 감정과 취향에 반응하고 행동하는 반려로봇(파이보) 출시, 2018년 12월 국내 크라우드 펀딩(179% 달성)
유진로봇 (로봇·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10월 인공지능 및 스마트홈 연동 로봇청소기(아이클레보O5)를 출시, 스마트스피커와 전용 앱을 통한 스마트 명령 가능
한샘 (가구·인테리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10월 스마트모션베드를 처음 출시하였고, 2019년 2월에는 수면 센서와 관련 제어 기능을 갖춘 신제품(바흐 801) 출시
LG하우시스 (인테리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호 핸들에 내장된 사물인터넷 디스플레이(히든 디스플레이 핸들)가 실내 공기 질 정보를 제공하고 환기 정보를 안내 - CES 2019에서 국내 건축자재 기업 중 최초로 혁신상 수상

*출처 : 산업연구원 미래전략산업(2019년 2월, 제5호)

III. 기술분석

주거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조를 통한 스마트홈 1등 기업

사용자 중심적 사고로 고객 감동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 제공과 끊임 없는 품질 개선 및 사후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고객 만족 실현하고, 지속 성장 가능한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현대통신 가족으로서 자긍심 고취와 협력사들과 함께 동반성장의 자긍심을 만들어 가는 문화를 구축하는데 있다.

■ 솔루션 및 기기에 대한 통신 및 IoT 기술이 융합된 스마트홈 시스템

스마트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솔루션 및 시스템 기술과 통신기술, IoT 등의 기술이 요구되며, 솔루션의 구성품은 서버, 게이트웨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이 포함된 저전력 유무선 통신기술이 요구된다.

[표 4] 스마트홈 시스템 기술 구성

구분	구성요소	설명
솔루션/시스템	클라우드 서버	- 사용자의 기기를 관리하며 사용자-기기 또는 기기-기기를 연결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스마트홈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관리됨.
	게이트웨이	- 인터넷을 통해 기기들을 클라우드 서버와 연결해 주는 장치이며, 허브(Hub)라고도 불림. - 기기들과 통신하기 위한 무선통신 프로토콜(Wi-Fi, Z-Wave, Bluetooth, Zigbee 등)과 클라우드 서버와 통신하기 위한 유선 통신 프로토콜(CoAP, MQTT 등)을 선택적으로 지원함.
	기기(Device)	- 온도 센서, IP 카메라 등과 같이 세대 내에 설치되는 IoT(Internet of Things)의 'Thing'으로써 센서 또는 스마트 홈 융합 가전 등을 포함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사용자가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기기들로부터 정보를 수신하거나 기기들을 제어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함.
통신기술	저전력 장거리 통신	- LoRa와 LTE-NB 등과 같은 저속, 저전력, 장거리 통신 기술로, 육외용 기기들을 연결하는 데에 주요 사용됨.
	저전력 인터넷 프로토콜 통신	- 스마트홈 게이트웨이와 클라우드 서버를 연결하기 위한 통신 프로토콜이며, CoAP와 MQTT 등이 주로 사용됨.
	저전력 무선통신	- 스마트홈 게이트웨이와 기기를 연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Bluetooth, Z-Wave, ZigBee 등과 같은 저전력 무선통신 기술임.

*출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월패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유무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가정 내에서 사용 가능한 스마트홈 시스템 서비스 제공

동사는 그림 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월패드를 중심으로 동작하는 스마트홈 시스템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다. 추가로 동사는 월패드와 클라우드 서버, 기기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병행하고 있다. 동사의 월패드는 유선 네트워크(RS-458)와 무선 네트워크(Wi-Fi, Z-Wave 등)를 기반으로 세대 내에서 통화, 방범, 제어, 정보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월패드는 또한 Z-Wave 무선통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센서와 스위치 등 스마트기기와 연결되며, 무선 로컬영역 네트워크(Wireless Local Area Network, WLAN)에서 기지국 역할을 하는 접근점(Access Point, A/P)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스마트폰과 연결된다.

[그림 5] 월패드를 중심으로 구성된 스마트홈 시스템 구성도



*출처 : 현대통신,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표 5] 스마트홈 시스템의 기술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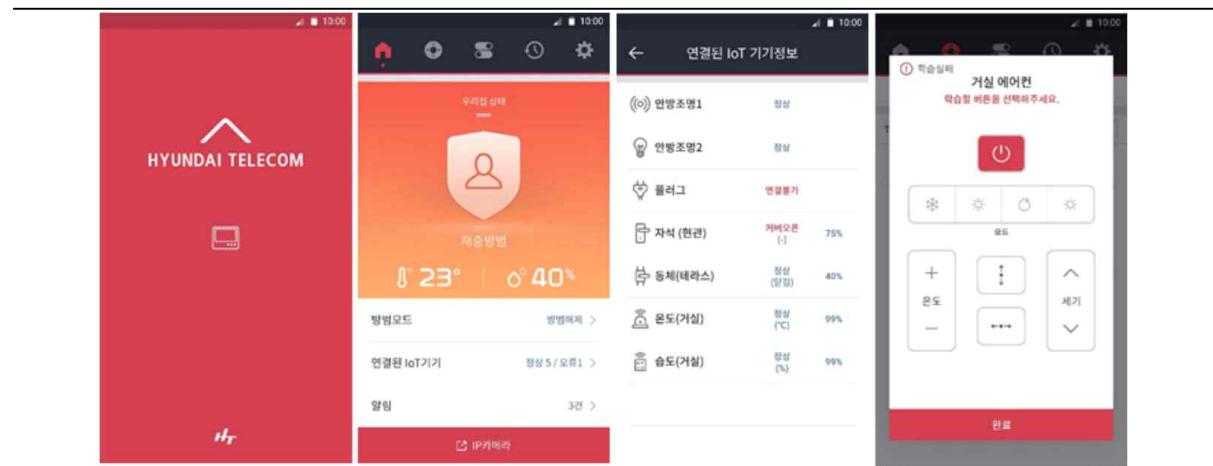
구분	기능	설명
월패드	통화기능	- 세대현관, 공동현관, 경비실, 세대간, 서브폰 통화 - 일반 전화 통화 등
	방법기능	- 방법 설정 및 해제 - 세대 내에서 비상상황 발생 시에 휴대폰 번호로 메시지 발신 등
	제어기능	- 조명, 가스, 난방 장치 제어 등
	정보제공기능	- 에너지 사용량, 방문자 영상, 택배도착 알리 등
스마트폰	방법기능	- 방문자 영상 등
	제어기능	- 조명, 가스, 난방제어 등
	정보제공 기능	- 에너지 사용량, 주민투표, 택배도착알림 등

*출처 : 현대통신,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동사는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그림 6과 같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월패드와의 연결을 통해서도 스마트홈 시스템의 제어기능, 방범 기능, 정보제공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그림 6] 월패드와 연결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화면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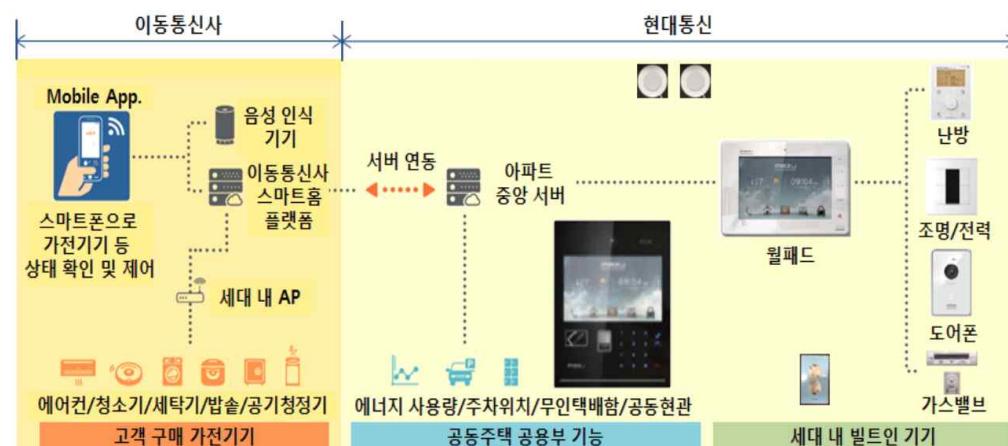


*출처 : 현대통신,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 이동통신 사업자 플랫폼과의 연결을 통해서 제공 가능한 스마트홈 서비스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환풍기, 금고 및 소방장치 등이 포함되는 소형 가전사의 제품 이외에도 에어컨, 공기청정기, 보일러 등 다양한 가전제품이 결합한 스마트홈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동사는 그림 7과 같이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KT, LG유플러스, SK텔레콤)의 스마트홈 플랫폼과 연결되는 스마트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7] 통신사업자의 IoT 플랫폼과 연결되는 홈네트워크 예시



*출처 : 현대통신,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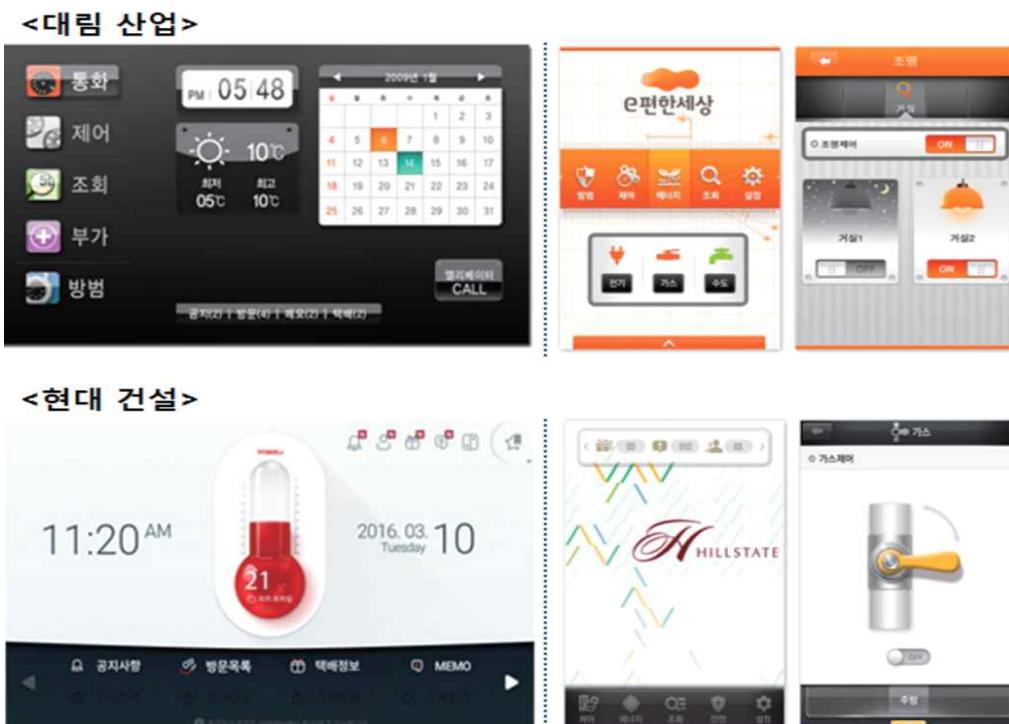
동사의 월패드와 연결된 기기 및 장치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사의 플랫폼과 연결된 다양한 기기 (에어컨, 청소기, 세탁기, 공기청정기 등)를 동사의 스마트홈 솔루션 기반으로 제어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추가로 동사는 자석을 활용한 문(Door) 결합 장치, 온습도계 및 조명 스위치 등 월패드를 통해서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기기 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보안성을 갖춘 스마트홈 시스템을 공급하기 위해서 보안업체와 협업을 수행하고 있다.



■ 건설사별 월패드 GUI,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디자인 개발역량 보유

동사는 건설사별 CI(Corporate Identity)와 BI(Brand Identity) 그리고 각 건설사에서 강조하는 스마트홈 시스템 기능 등을 고려하여 건설사 전용 월패드 GUI(Graphic User Interface)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디자인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다.

[그림 8] 동사 건설사별 월패드 GUI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출처 : 현대통신,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 기술개발인력 및 조직과 최근 기술개발 활동

동사는 1998년에 공인된 기업부설연구소(연구분야 : 전기전자)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인력을 구성된 전담 조직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고, 디자인 경영팀에 속한 디자인 전담 인력을 포함하여 약 60명의 전담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동사는 건설사 맞춤형 월패드 기술, 스마트홈 솔루션 제공을 위한 서버(Server)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술, 영상압축 및 전송, 무선통신 등에 관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표 6은 최근년도 주요 연구개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 경쟁요소 및 업계 전망

국내 스마트홈 사업은 전문 스마트홈 업체, 건설사 관계사, 서비스사업자, 플랫폼 사업자 등 다양한 업체 간의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다. 동사는 전문개발인력, 마케팅, 지속적인 R&D 투자를 기반으로 상위 건설사뿐만 아니라 지방의 주요 중소형 건설사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으며, 건실한 영업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최근 국내 스마트홈 시장은 건설사, 가전사, 서비스사업자, 제조사 등이 상호 협력과 경쟁을 통하여 시장선점을 위한 사업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 신축아파트 위주의 스마트홈 월패드 및 연동 서비스 시장은 기존 스마트홈 제조사 위주로 공급되고 있으며, 타 분야 또는 신규 업체들의 시장진입이 쉽지 않은 특성이 있다.

스마트홈의 활성화와 사물인터넷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증가에 따라, 맞춤형 연동 기능이 가능한 솔루션이 속속 시장에 등장하여 신축아파트 위주의 분양시장 판매뿐만 아니라 B2C 영업을 통한 신규 시장 개척도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6] 최근 주요 기술개발 현황

구분	설명
2017년도	- 주장치 기능을 내장, 단자대 및 파워 일체형 설계
	- 영상 분배 회로 표준화 설계, 세대기 SYSTEM과의 1 UTP 인터페이스 설계
	- 단자대 및 파워 일체형 설계,F/D(Floor Distributor) System과의 1 UTP 인터페이스
	- 2도어폰 모듈 (2채널 신호분배기)
	- 대림향 월패드 VE모델 , DWP-1004HT 기능 수용, 단자대 일체형
2018년도	- HLF-I1041 Back Box 금형(직판용) 개발
	- ALL LAN 방식, HLPC-9004 모델의 BLE 모듈 적용 개발
	- HDHN-3000 모델 금형제작, 음성인식 모듈 장착 가능 설계
	- HNF-I4100 모델 금형제작, 정전용량 방식 Touch Panel 적용 가능 설계
	- 주장치 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한 Half Lan 방식의 제품개발
	- 포스코건설향 도어폰, 근접센서 적용 및 RS-485 통신 이용 영상 자동 전송
	- 안드로이드 OS 및 신규 GUI를 적용한 전면 Full Touch 제품, 월패드(Android)
2019년도	- 한남 나인원 특화 디자인 적용 로비폰 개발
	- 한남 나인원 팬트하우스 적용 도어폰/도어락 확장 연동 개발
	- 월패드(Android), 슬림 타입 디자인 적용, 안드로이드 OS 및 GUI 적용
	- 슬림 타입 신규 디자인, 안드로이드 OS 및 GUI 적용 월패드

*출처 : 동사 분기보고서(2020년 9월),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IV. 재무분석

매출 감소에 따른 수익성 하락

동사는 스마트홈 시스템 및 LED 조명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자체 개발한 아파트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주력 제품으로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등 국내 주요 아파트 건설업체를 주요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와 주택시장 부진으로 매출변동성 커지고 있으며, 2020년 3분기 누적 기준 매출 및 수익 감소하고 있다.

■ 내수경기 부진으로 2020년 3분기 누적 기준 매출 및 수익 감소

동사는 스마트홈의 플랫폼(Platform)으로 동작하는 월패드(Wall-Pad) 분야 기술개발을 통해 스마트홈 등의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으로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두산건설, 대우건설 등 국내 주요 아파트 건설사를 주요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다. 동사 최근 매출액은 2017년 1,174억 원, 2018년 1,273억 원, 2019년 1,046억 원을 시현하여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내수 경기 침체와 주택시장 부진 등으로 당기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

2020년 3분기 누적 매출은 718억 원으로 전년 783억 원 대비 8.3% 감소하여 매출감소세 이어지고 있으며, 2020년 3분기 누적 기준 영업이익 63억 원, 당기순이익 65억 원 시현하여 전년 동기 영업이익 86억 원, 당기순이익 83억 원 대비 감소하고 있으나 수익성 지수는 업계 평균 대비 양호한 수준 유지하고 있다.

[표 7] 품목별 매출 실적

(단위 :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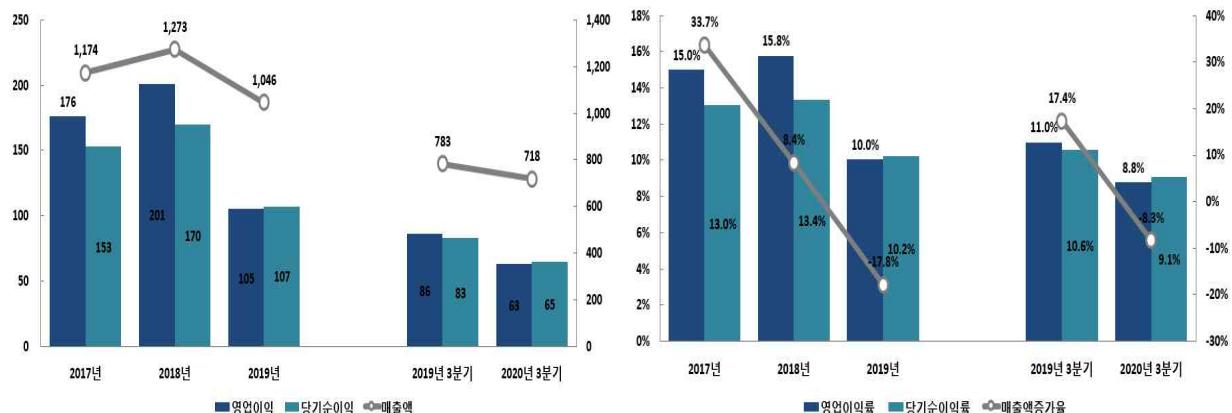
매출유형	품목	2020년 3분기	2019년 3분기	2019년
재화매출	S/H 월패드 범용	5,021	8,578	11,076
	S/H 월패드 전용	6,478	4,588	5,974
	S/H 로비폰 범용	1,936	1,852	2,443
	유통 월패드 범용	1,187	775	1,134
	H/A 월패드 범용	1,328	792	1,023
	해외 월패드 범용	27	231	473
	S/H 경비실기 범용	164	122	165
	해외 로비폰 범용	3	0	2
	기타	46,737	49,219	65,425
용역매출	설치공사비 외	7,076	10,590	14,756
기타매출	A/S 자재판매 외	1,811	1,538	2,082
합계		71,768	78,285	104,553

*출처 : 동사 분기보고서(2020년 9월),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그림 9]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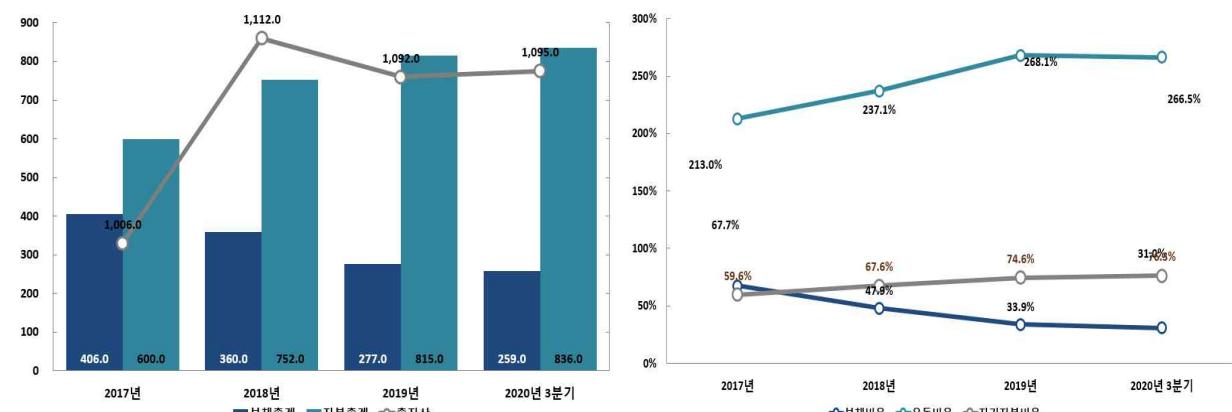
*출처 : 동사 분기보고서(2020년 9월),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 안정적인 비율 유지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를 보면 2019년 누적 잉여금 감소로 부채비율 33.92%로 전년 대비 감소하며 업계평균 대비 우수한 수준 유지하고 있고 2020년 3분기 누적 부채비율 31.0%로 우수한 수준 유지하고 있다. 2019년 자기자본비율 74.7%로 업계 평균 대비 우수한 수준 유지하고 있으며, 2020년 3분기 누적 기준 자기자본비율 76.3%로 일정 수준 유지하고 있다. 2019년 유동비율은 268.1%로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으며 업계 평균 수준 유지하고 있다.

[그림 10]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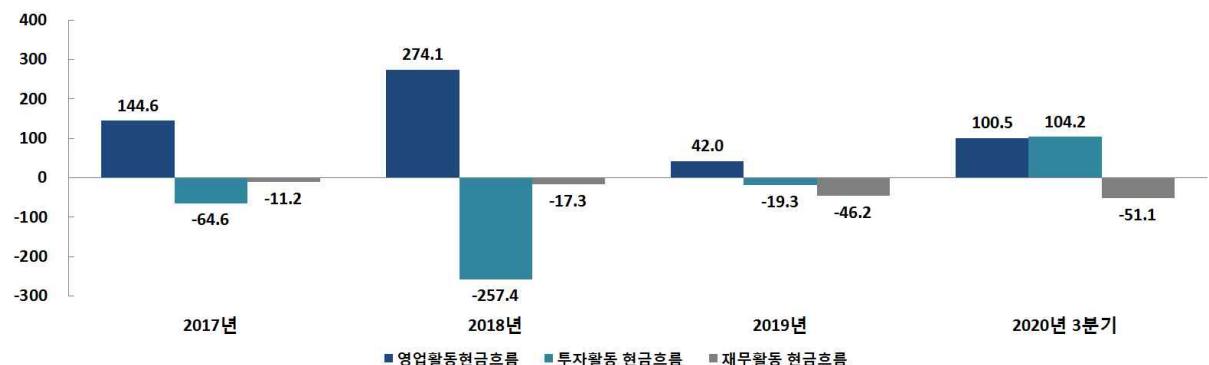
*출처 : 동사 분기보고서(2020년 9월),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 3년 연속 정(+)의 영업활동 현금흐름 유지

동사는 현금창출능력을 나타내는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3년 연속 흑자를 지속하고 있으나, 매출 및 수익 감소, 매출채권 증가 등으로 2019년 영업활동 현금흐름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2019년도 기준 여유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유형자산 취득과 단/장기 투자자산 취득 등으로 투자 관련 현금흐름 적자 흐름 보이고 있고 재무활동 현금흐름도 적자 흐름 유지하고 있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9년 결산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86억 원, 단기투자자산 313억 원, 유동금융자산 29억 원 확보한 점을 감안하면 현금창출력은 양호하게 보인다.

[그림 11] 현금흐름성 분석

(단위 : 억 원)



*출처 : 동사 분기보고서(2020년 9월),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스마트홈 브랜드 가치 최고! 주거문화의 선도적인 역할!

스마트홈 브랜드 ‘IMAZU’는 2019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 16년 연속 1위 수상 등 수년간 브랜드 파워 1위를 지켜오며 현대통신의 브랜드 가치를 소비자에게 인정받고 있다. 또한, 끊임 없는 연구개발로 다양한 첨단제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무인경비 시스템 개발, 스마트홈 시범단지 최초 구축, 대단지 아파트 음성인식 최초 적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거문화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 이동통신 산업의 성장 정체로 인한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홈 산업

이동통신 산업이 최근에 성장 정체를 겪고 있으면서, IoT 산업은 이동통신 사업자의 주요한 돌파구로 주목을 받고 있다. SK텔레콤은 2016년 IoT 전용망인 로라(LoRa)의 구축을 완료하였고, KT와 LG유플러스는 2017년 하반기에 협대역 사물인터넷망을 전국에 구축하였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각자의 IoT 전용망과 IoT 플랫폼을 중심으로 원격제어와 무선 검침 등이 포함된 스마트홈 서비스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스마트기기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 기반 스피커 등을 새롭게 출시하거나 후속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스마트홈 시장 공략을 위하여 건설사들과 협력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SK텔레콤은 30여 개의 건설사와 제휴를 맺고 신규 분양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스마트홈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LG유플러스 또한 30여 개의 건설사와 중소형 오피스텔 건설업체들과 관련된 협약을 맺었으며, KT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호텔 및 상업시설 등 다양한 공간에 특화된 스마트홈 솔루션을 확대하여 적용할 계획을 하고 있다.

■ 소규모 주택단지 등 새로운 판매처 지속적인 발굴

[그림 12] 소규모 주택단지용 월패드 및 도어카메라



*출처 : 동사 홈페이지



동사의 주요 매출은 신규 분야 아파트의 스마트홈 구축 사업 수주로 인한 것이나, 최근 지역 내 재개발 아파트에 대한 스마트홈 구축 사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타운하우스 등의 소규모 주택단지에 공급이 가능한 월패드와 도어카메라 등을 개발 및 보유하고 있다. 동사는 소규모 주택단지에 스마트홈 시스템 판매를 증대하기 위하여 관련 유통망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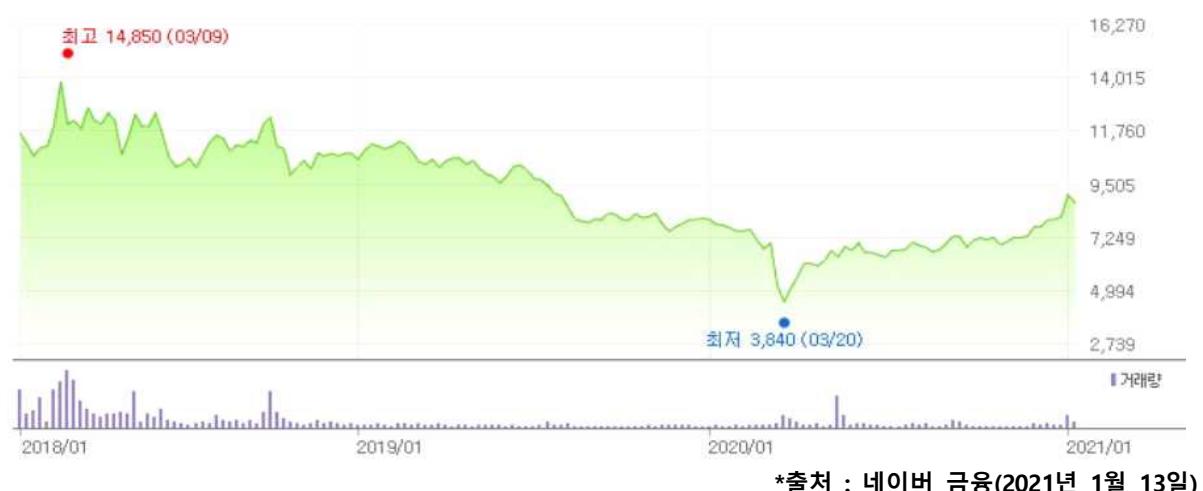
국내 주거환경은 홈오토메이션의 설치가 용이한 다가구 중심의 집단 주거환경이 많은 편이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높은 수준의 네트워크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점들은 동사가 소규모 주택단지에 제품을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 기기 및 스마트 가전 제조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홈오토메이션과 관련된 제품군을 늘려가고 있는 점 또한 해당 시장에서 동사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유무선 네트워크 기술, ICT 융합 기술의 발달 및 전 세계적인 스마트 단말기 보급의 기술 발전과 정부의 4차 산업 육성 및 에너지/환경 정책 강화에 힘입어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 스마트홈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스마트홈 산업의 각종 디바이스 및 솔루션이 스마트폰과 연동되면서 통합적 스마트홈이 실현되고 있고, 클라우드 및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주목을 받으면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뿐만 아니라 안경, 시계 등 다양한 가전 및 디바이스에 네트워크 기능이 적용됨에 따라 스마트홈 시장이 한층 더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동사는 스마트홈 전문업체로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한 스마트홈 시스템 개발 및 센싱기술, IoT 기술 등을 활용한 디바이스 개발,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사업을 통해 스마트홈 산업부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중에 있다. 또한, 국내 스마트홈 산업부문에서 Market Share 1위를 자랑하고 있는 전문업체로서 글로벌 기업으로의 재도약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재정립하고, 국내외 서비스 사업자, 건설사 등과 전략적 사업 연대를 강화하여 IoT 기술을 통한 가정 내 가전, 시큐리티, 헬스케어, 에너지관리, 빅데이터 분야 등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시장의 선도기업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그림 13] 현대통신 최근 3개년 주가 변동 현황



■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최근 1년 이내 발간 보고서 없음"			